

## 정부 중소기업 수출지원 총력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과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중소기업청,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이달 중 1500개의 내수기업을 선정, 이들 업체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데 1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수출 경험이 없는 200개 기업을 선정, 수출대행사를 통해 수출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도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KOTRA는 부품·소재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대기업 바이어를 적극 유치하고 시장개척단을 3차례에 걸쳐 해외에 파견키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에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하도록 러시아 모스크바에 '수출인큐베이터'를 개설키로 했으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5개국, 8개 도시에 설치돼 있는 'IT기업 해외지원센터(i-Park)' 운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보험공사는 환변동 보험에 9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한국무역협회는 협회를 방문하는 연간 2천명 이상의 바이어를 동대문시장과 연계시켜 수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최준영 중기특위 정책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수 의존형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수립한 12대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 중소기업 37.8% 설비투자 계획

경제 불확실성과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가운데 37.8%가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384개 중소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37.8%가 올해 중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최근 조사인 2003년의 39.0%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 그 동안 경기 불황으로 크게 위축됐던 설비투자 부진심리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설비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기업 가운데 투자비를 증액한다는 비중은 54.5%를 기록, 감액 기업 비율 20.7% 보다 많았으며, 74.5% 기업들이 상반기 중 설비 투자 계획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설비가 노후화 됐다는 응답이 34.1%로 그렇지 않다는 대답인 25.3% 보다 많아 생산설비 노후화가 다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설비

투자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소제조업체들은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설비투자 특별 자금 지원 확대 및 내수 진작책 마련,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액면제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이자율 인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의 대출이자율을 다음달 1일부터 0.25%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음할인을 위주로 하는 '제 2호 대출' 금리의 경우 A신용등급은 현행 6.25%에서 6.00%, B등급은 7.25%에서 7.00%, C등급은 8.25%에서 8.00%로 낮아진다. 단기운영자금 위주의 '제3호 대출'은 A등급의 경우 8.00%에서 7.75%, B등급은 8.25%에서 8.00%, C등급은 8.50%에서 8.25%로 조정된다. 중기중앙회는 또 D등급 대출 조항을 신설, 제2호 대출은 8.25%, 제3호 대출은 8.50%의 금리를 확정했다.

## 올해 中企대출 228조원 전망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권의 올해 대출 규모가 2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기관 협의회에서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여신지원계획을 집계한 결과, 농협·수협·한국씨티은행 및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16개 금융기관이 올해 총 228조437억원의 중소기업 대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출된 금액 204조9250억원에 비해 11.3%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중기특위는 전망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1조5천억원을 투자 또는 용자로 지원하고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1천억원 규모의 '기술력 평가대출'을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행은 2천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를 조성하고 투·융자 복합상품을 출시해 1조5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9천억원 규모로 '기술개발 시범기업(Seed Company)'을 발굴, 육성하고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 확산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국민은행도 자회사

인 'KB창업투자'를 '부품·소재협의회'의 투자기관으로 참여시켜 부품·소재기술개발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 IT화 사업 140억 투입

산업자원부는 올해 중소기업 IT화 사업에 1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대기업이 참가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IT화 사업 △협력업체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의 협업적 IT화 사업을 비롯해 △전사적 지원관리(ERP) 도입 사업 △통합무역관리솔루션 사업 △모바일 비즈니스연계 IT화 지원사업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사업 등 모두 9개 분야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별기업의 경쟁력 강화'에서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전환한 점으로 이 분야 지원 비중을 지난해 27%에서 45% 정도로 높일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의 협업적 IT화 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방식을 도입,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게 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정보보안 시스템 도입을 신설, 중소기업이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해 등의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 지방·사업조합 설립인가 시·도 이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 지역연합회 설립 인가권이 중소기업청장에서 각 시·도지사로 이관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분권촉진 및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심의·의결(2003.6.16)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의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의 설립인가,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의 정관변경·규약 제정·개폐 승인에 관한 위임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이에 따라 지방조합이나 사업조합, 지역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인은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인가를 내주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조합 회원사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공동대표이사 임명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조합 임원자격을 갖출 수 있었

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공동대표이사로 임명되기 전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할 기간까지 포함시키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는 과태료 부과 시 서면통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권 등을 추가해 과태료 규정을 보완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 관리지역 내 소규모공장 신설 허용

앞으로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서는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관리지역 내에서는 농공단지에서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도 신설을 허용하되 난개발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자연환경이나 상수원 보존 등을 위해 지정된 특별대책 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에는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도로확보 기준을 건축법으로 단일화해 개발행위 시 진입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폭을 2m까지 완화해 주고 특히 주변에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확보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 시 4m 이상 도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는 시·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되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공고 사항을 신문 등 오프라인 매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상세히 게재토록 했다.

## 서울산업진흥재단 중소기업 우대혜택 등 지원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추천을 받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은 앞으로 융자 및 신용보증 우대혜택을 받는다. 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 권오남)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은 지난 2월3일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재단은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각종 융자 및 신용보증시 협력을 통해 우대혜택을 실시한다.

## 중소 준조세 부담 힘겹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한 해 동안 지출하는 준조세가 순이익의 절반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연합회 403개사를 대상으로 '준조세 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3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업체당 평균 준조세는 1억2천494만2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대상 기업 평균 당기순이익의 45.7%, 연간 연구개발비의 98.4%에 해당하며, 조세의 125.3%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세금보다 오히려 준조세가 많았다. 특히 각종 부담금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사회복지성 부담금이 9442만8천원(77.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회계감사 수수료 등의 각종 사용료 부담금이 1513만2천 원으로 12.5%에 달했다. 또 조세와 유사한 성격인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도 6.2%인 754만1천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기업경영에 대한 부담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80.6%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으며 걱정하거나 부담이 없다는 업체는 각각 15.4%, 4%에 불과했다. 또한 2003년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준조세성 경비의 추이를 묻는 항목에서는 79.2%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변화가 없거나 줄었다는 응답은 20.8%였다.

## 중소기업 전용 전시센터 본격 추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도권 유일의 중소기업 전용 전시장 및 컨벤션센터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상암 월드컵경기장 맞은 편에 있는 옛 석유비축기지 부지의 용도 변경계획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 곳에 "중소기업 전시컨벤션 및 문화콘텐츠 종합센터"를 세우기 위한 건립계획을 확정,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경태 중기중앙회 사업본부장은 "서울시 계획안에 따라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면 이 곳에 센터건립이 가능해진다"며 "부지매입과 건축비 국고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하반기 중 설계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2003년 12월 여의도중소기업전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 전시공간 확보를 위해 상암동에 전시 및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최

본부장은 "서울시와 기본적인 건축 계획과 센터활용방안에 대해서 합의했다"며 "개장시기는 2008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시컨벤션 종합센터는 대지 1만650평에 지상 6층, 지하 2층의 연면적 2만5천3백여평 규모로 지어진다.

## 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지원

앞으로 연구개발능력과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우수 특허 보유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권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특허청은 최근 산업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며 우수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따른 비용(5억원)은 특허청이 지원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특허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특허가치를 평가, 사업성과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금년 상반기에 모두 50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하반기에도 같은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깔깔깔**

- 서울시민 모두가 동시에 고향지르면 무슨 말이 될까?  
천만의 말씀
-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를 네자로 즐기면?  
개인지도
- 아홉 명의 자식을 세자로 즐기면? 아이구
- 연예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  
스타워즈
- 가슴의 무게는? 두근 두근해서 총 네근
- 똥의 성은? 응가
- 먹고살기 위해 하는 내기? 모내기
- 라면은 라면인데 달콤한 라면은?  
그대와 함께라면
- 토끼가 제일 잘하는 것은? 토끼기 → 도망치기
- 별중에 가장 슬픈 별은? 이별
- 진짜 새의 이름은? 참새
- 금은 금인데 도둑 고양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금은?  
야금 야금